

문화예술관람이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s of Culture and Arts Viewing Activities on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김 준*, 최배석**

호산대학교 뮤지컬과*, 단국대학교 문화예술학과**

June Kim(artesj@naver.com)*, Bae-Suk Choi(cbsk007@naver.com)**

요약

본 연구는 문화예술관람이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예술관람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문화예술관람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문화예술관람이 자아존중감의 매개를 통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한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에 각 2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할당 표본 추출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기간은 2018년 6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13일 동안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서울지역에서 224부 회수, 대구지역에서 181부 회수, 부산지역에서 199부가 회수되어 전체 604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문화예술관람을 많이 할수록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문화예술관람을 많이 할수록 삶의 만족도도 유의하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문화예술관람을 많이 할수록 자아존중감의 매개를 통해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는 간접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자아존중감 | 삶의 만족도 | 문화예술관람 | 문화예술 | 문화예술활동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culture and arts viewing on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To put it concretel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culture and arts viewing on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respectively. In addition, it examines whether the indirect effect of culture and arts viewing on life satisfaction through the mediation of self-esteem is significant.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study, quota sampling was conducted by distributing 250 questionnaires in Seoul, Daegu and Busan metropolitan cities, respectively. The survey was conducted for 13 days, from June 18 to 30, 2018. A total of 604 respons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since 224, 181 and 199 responses were respectively collected from Seoul, Daegu and Busan. Results from the analysis of collected data showed that self-esteem increased with more culture and arts viewing and life satisfaction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more culture and arts viewing activities. The study results also showed that life satisfaction increased with higher self-esteem.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indirect effect of increased culture and arts viewing on higher life satisfaction through the mediation of self-esteem is significant.

■ keyword : Self-Esteem | Life Satisfaction | Culture and Arts Viewing | Culture and Arts | Culture and Art Activities |

접수일자 : 2018년 09월 10일

수정일자 : 2018년 10월 10일

심사완료일 : 2018년 10월 25일

교신저자 : 최배석, e-mail : cbsk007@naver.com

I. 서론

여가활동은 사회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개인의 사회적 혹은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다[1]. 현대인들은 여가활동에 참여하여 건강 증진과 스트레스 해소, 심리적·사회적 향상 등을 도모하며, 국민의 여가생활 트렌드는 생활 속 재충전 및 새로운 에너지 생산을 목표로 한다[2]. 이러한 여가활동은 인간의 삶에서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삶의 주요한 부분으로 여겨지게 되었다[3].

여가시간의 증대를 위해 2014년 9월부터 ‘대체휴일제’가 시행되었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근로자의 여가활동이 증대되었다. 삶의 질이란 개인의 생활을 영위하는 중요한 사회적 조건이다. 여가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삶의 만족수준을 높일 수 있다[4].

여가활동에 대한 정의들을 정리해보면, 여가는 노동의 반대개념으로 일상에서 얻는 스트레스나 갈등으로부터 벗어나 에너지를 되찾고 삶의 질을 높이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휴식활동이다[5].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동의 가치를 여기는 집단을 형성하고, 구성원에게 그 집단에 소속감이나 일체감을 가지게 한다. 이를 통해 개인은 사회의 일원임을 느끼게 되고, 사회생활을 하며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소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여가활동에서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이 문화예술활동이라 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면, 문화예술은 응용미술을 포함하는 미술, 문학, 음악과 무용, 연극, 영화, 사진, 건축, 국악, 어문, 출판 및 만화로 규정된다[6].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예술활동을 문화예술 관람활동과 문화예술 참여활동으로 분류하여 국민들의 여가활동 유형을 조사하고 있다[7]. 문화예술활동은 개인과 사회의 문화적 성숙을 이루고, 국민들의 풍요로운 삶의 목적에 기여한다[8]. McCarty(2004)는 문화예술활동 경험은 타인을 이해하게 하고 다른 그룹 또는 계층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때문에 사회적 소통의

기초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9]. 또한, 김소정(2017)은 문화예술활동은 복잡적이면서 풍부한 감각적인 자극을 촉발하여 뇌의 중추신경계를 활성화하고, 인지기능을 향상시키며 스트레스와 정서적 치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0]. 장보민(2014)의 연구에서는 문화예술활동이 교육생들의 자아발견 및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긍정적 사고형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고 하였다[11]. 노인들의 문화생활에 대한 연구에서도 문화예술활동은 중·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노인의 우울과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고[5], 노인들의 우울증을 감소시키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도출되고 있다[12-15].

문화예술관람과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간의 영향관계를 다루는 비슷한 연구들은 많지만, 본 연구는 여러 가지의 문화예술관람에 의해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와 함께 문화예술관람이 자아존중감의 매개를 통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하나의 문화예술 측면의 경험을 통한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의 영향관계를 다루거나, 특정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아존중감의 변화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지만, 여러 가지 문화예술관람을 다루고 있는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 가지 문화예술 분야가 아닌 여러 문화예술 측면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예술관람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둘째, 문화예술관람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 문화예술관람이 자아존중감의 매개를 통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살펴본다.

II. 이론적 배경

1. 문화예술관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여가활동의 유형을 조사하는 보고서에서 문화예술활동을 문화예술관람 활동과 문화예술참여 활동으로 분류하였다. 문화예술관람 활동이란 교양을 함양하기 위해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하는 행동을 의미하고, 문화예술참여활동이란 공연이나 창작 활동, 미술 등의 체험 등과 같이 적극적인 참여 행동으로 정의된다[7]. 문화예술활동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하는 국가의 목표달성에 필수적 가치라고 할 수 있고, 문화소비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영화관람, 공연관람, 음악회, 전시회 등과 같은 관람활동을 통해 정서적, 인지적, 감성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고, 이는 삶의 만족감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16][17].

문화예술관람은 지식문화사회에서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고, 예술활동을 통한 다방면의 창의력 개발은 계속되는 환경변화 속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게 된다[18]. 또한, 사회적 갈등의 해소와 문화적 차이에 관한 이해, 문화 사이에 수평적인 관계 맺기에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문화예술활동의 효과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지역 간의 차이와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한 상호관계적인 능력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19].

문화예술관람은 청소년들에게는 복합적이면서 풍부한 자극을 촉발하여 뇌의 중추신경계를 활성화하고, 스트레스와 정서적 치유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 정서적 치유를 통해 청소년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10]. 또한 문화예술관람을 통해 성인이 되었을 때 각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힘을 기를 수 있다.

박미현(2008)은 중년여성의 여가활동 참여정도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으며[20], 이재연(2014)은 중년여성의 한국무용 공연 참여가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21]. 방현미(2012)는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아

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밝혔고[22], 양보람(2011)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개발활동 무용수업 참여정도가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23]. 이인숙(2008)은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적용이 학습부진아의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24].

최현목(2008)은 문화예술교육이 문화복지로서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고[25], 하미경·윤동열(2013)은 문화예술학습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26]. 송병식(2014)은 자치회관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주민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27].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개념으로 평가와 존중의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 자아의 개념은 자신의 신체적 특징과 개인적 특성, 가치관, 역할, 사회적 신분과 같은 요인을 포함하며,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28]. 또한 자아존중감은 자아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라고 정의되고 있고[29], 개인이 자신을 평가하는 것으로 자신에 대해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30].

문화예술활동은 긍정적인 경험으로 작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성취감을 느끼도록 만들고 긍정적 이미지를 떠올리도록 도와 감정을 배출하면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게 된다[31]. 최소림(2006)의 집단음악치료 연구에서도 문화예술활동이 장애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밝혔고[32], 지명원·조태영(2012)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만족이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33]. 김혜수(2014)는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34]. 김현중(2018)은 예술인파견지원 사업 참여예술인의 직무만족감과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고[35], 박혜미(2012)는 직장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

도 사이에는 유의한 정(+)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밝혔다[36]. 권한경(2011)은 중년여성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밝혔으며[37], 원경혜(2016)의 연구에서는 은퇴자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38]. 최태을(2017)은 도시지역 베이비붐세대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39]. 이설림(2015)은 노인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고[40], 김양순(2003)은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이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41], 김영길(2008)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문화예술활동이 개인의 자아존중감과 생활 만족감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42].

하유진(2007)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및 내외 통제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3]. 양명순(2007)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자아존중감 안정성이 모두 높은 집단이 우울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이 심리적 안녕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44].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높은 자아존중감은 개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45].

이주영(2018)은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은 다문화 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6].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사회성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사회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7]. 박윤진(2011)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48], 박지연(2008)은 자아존중감의 7개 하위영역 중에서 6개의 하위영역이 대인관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49].

3.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은 개인이 현재 자신의 지위나 활동에 가지

는 만족감이다[50].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삶의 질에 대한 개념은 단순히 생존이나 생명의 연장과 같은 관점보다는 개인이 직접 느끼는 주관적인 삶에 대한 관점이 일반적이다[51].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인 요인은 성별, 연령, 결혼과 직업, 종교, 건강과 소득이 있고, 환경적 요인으로는 인간관계, 가족관계, 사회활동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26].

권한경(2011)은 중년여성의 생활 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37]. 서혜정(2014)의 연구에서도 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여가만족, 직무만족, 생활만족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2]. 위세아(2014)는 노인의 여가문화활동은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삶의 질과 만족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고[52], 유대우(2014)의 연구에서는 중·고령자의 관광, 여행, 영화관람, 공연관람 등의 문화예술관람활동이 많을수록 삶의 질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5]. 정명숙·강성임(2010)의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가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혔다[53].

조성자(2012)는 노년기의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우울과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사회심리적 요인임을 밝혔다[54]. 최은화(2018)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기불일치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마음챙김 수준이 높을 때 삶의 만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55]. 강윤아(2018)는 부모 및 자녀의 삶의 만족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부모와 자녀의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도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56]. 김응경(2013)의 연구에서는 가족 및 타인의 지지로 구성된 사회적 지지가 사회복지사의 삶의 만족도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57].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관람 활동이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 분야의 연구,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 및 가설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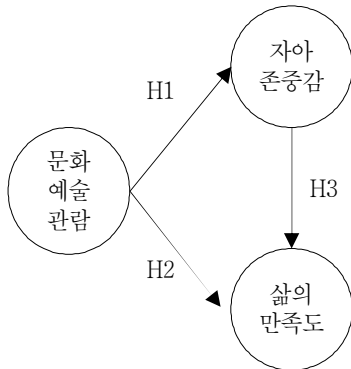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고찰의 과정을 통하여 개념들 간의 영향관계를 고찰하였고, 개념들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게 되었다. 문화예술관람과 자아존중감 간에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33], 문화예술관람과 삶의 만족도 간의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들 [2][5][33],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간의 영향관계가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들[33][53]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1. 문화예술관람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문화예술관람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 문화예술관람이 자아존중감의 매개를 통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할 것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비확률표본추출방법 중 할당표본추출방법을 이용하여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에 각 230부의 설문지를 할당 배포하여 편의표본추출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8년 6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13일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다양한 연령대의 조사를 위하여 고등학교, 대학교, 회사, 백화점 및 마트 문화센터 등의 기관에 조사원을 파견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원을 파견하기 전에 각 기관에 연락을 취하여 설문조사에 대한 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조사에 응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후 조사원을 파견하였다. 설문조사는 자기기입식 방법에 의해 응답을 받았다. 최초 각 지역별로 230부를 배포하여 전체 690부를 배포하였고, 서울지역에서는 224부가 회수(회수율 89.6%)되었고, 대구지역에서는 181부가 회수(회수율 72.4%)되었으며, 부산지역에서는 199부가 회수(회수율 79.6%)되었다. 따라서 전체 604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3. 설문지의 구성 및 분석방법

3.1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의 가설을 규명하기위하여 [표 1]과 같이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문화예술관람은 문화체육관광부(2016)의 ‘2016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 사용했던 문화예술관람 항목 8가지를 사용하여 관람빈도에 따라 리커트 5점 척도로 조사를 실시하였고[7], 자아존중감은 선행연구[29][58][59]를 바탕으로 10개 항목을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선행연구[60][61]를 바탕으로 5개 항목으로 구성하였고,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의 통계처리 는 데이터 코딩과 크리닝 과정을 거쳐 SPSS 프로그램 과 AMOS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설문지의 구성

변수구분	문항수	관련연구	측정방법
문화예술관람	8	문화체육관광부(2016)	리커트 5점 척도
자아존중감	10	Rosenberg(1965), 전병재(1974), 윤석주(2014)	
삶의 만족도	5	Diner et al.(1985), 이원남(2016)	
인구통계학적 특성	6	성별, 연령, 거주지역, 학력, 직업, 월수입	명목 서열

IV. 분석결과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특성

표본의 인구통계학적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빈도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결측치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성이 56.8%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대는 20대가 21.7%로 가장 많았고, 학력은 전문대 재학 및 졸업자가 38.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은 학생이 35.2%로 가장 많았고, 전문직이 15.5%, 회사원이 12.2%, 주부가 11.1%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월수입은 100만원 미만인 35.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의 거주지역은 서울지역이 37.1%, 대구지역이 30.0%, 부산지역이 32.9%로 각각 나타났다.

표 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특성 (N=604)

구분	항목	n	%
성별	남성	259	43.2
	여성	341	56.8
연령대	20대미만	128	21.5
	20대	129	21.7
	30대	113	19.0
	40대	102	17.1
	50대	84	14.1
	60대이상	39	6.6
학력	고졸이하	177	30.7
	전문대재학/졸업	224	38.9
	4년제대학 재학/졸업	145	25.2
	대학원재학이상	30	5.2
직업	회사원	72	12.2
	전문직	91	15.5
	공무원	23	3.9
	교직원	14	2.4
	자영업	59	10.0
	서비스직	26	4.4
	주부	65	11.1
	학생	207	35.2
	기타	31	5.3
월수입	100만원미만	189	35.3
	100-200만원미만	83	15.5
	200-300만원미만	76	14.2
	300-400만원미만	59	11.0
	400-500만원미만	51	9.5
거주 지역	서울	224	37.1
	대구	181	30.0
	부산	199	32.9

결측치는 분석에서 제외되었음

2.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2.1 탐색적요인분석

요인의 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방식을 사용하였고, 회전방법은 직각회전방법 중 하나인 Varimax방식을 사용하였다. 요인을 추출하는 기준인 고유값(eigen value)이 1 이상인 경우 요인으로 도출하였다. 요인적재 값은 .40미만이거나, 단일 차원성을 저해하는 교차적재되는 항목은 삭제하였다.

표 3. 연구개념들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명(Cronbach's α) 변수	요인 적재량	고유치	분산 설명력		
문화예술관람(.893)					
2. 박람회관람	.810	4.362	22.960		
3.음악연주회관람(클래식/오페라 등)	.807				
4. 전통예술공연관람(국악/민속놀이 등)	.795				
6. 무용공연 관람	.793				
1. 전시회관람(미술/사진/건축/디자인 등)	.762				
5. 연극공연 관람 (연극/뮤지컬 등)	.756				
8. 연예공연 관람 (쇼/콘서트/마술 쇼 등)	.678				
자이존중감(.885)					
2. 나 자신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다.	.748	4.223	22.226		
1.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739				
10.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733				
9. 내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727				
4.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721				
6.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698				
5. 나 자신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다.	.646				
삶의만족도(.877)					
5. 다시 삶을 산다고 해도 지금처럼 살고 싶다.	.787	3.340	17.579		
4.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많이 이루어왔다.	.768				
3. 현재의 나의 삶에 대해 만족한다.	.759				
1. 내 삶은 대체로 이상적이라 생각하는 삶과 가깝다.	.699				
2. 내 삶의 여러 상황과 조건들이 좋은 것 같다.	.697				
누적분산설명력=62.765, KMO=.925, Bartlett's $\chi^2=6220.440$ ***					

*** p<.001

스트레스에 대한 11개 항목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결과, 문화예술관람 요인의 '7. 영화관람'의 요인적재량이 0.4 미만으로 나타나 제거되었고, 교차적재 되어 단일 차원성을 저해하는 자이존중감의 3개 항목('나는 대체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나는 내 자신을 존경한다')은 삭

제되었다. 케이스의 수와 변수의 수가 적절함을 살펴보는 척도인 KMO는 .925으로 적절하게 나타났고, 변수들 간의 관계가 상관행렬인지 단위행렬인지를 살펴보는 Bartlett의 구형성검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단위행렬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최종분석에 사용할 데이터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임을 알 수 있었다. 누적분산설명력은 62.765%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관람은 7개 항목이 적재되었고, 신뢰도는 0.893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고, 자아존중감은 7개 항목이 적재되었고, 신뢰도는 0.885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삶의 만족도는 5개 항목이 적재되었고, 신뢰도는 0.877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2.2 확인적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정제된 개념들의 신뢰성 및 타당성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좀 더 엄격한 기준의 확인적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시행하였다. 샘플사이즈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대개 표본수가 200케이스를 넘으면, χ^2 의 통계량은 유의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참고지표로 사용하고, 검정통계량으로는 적용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 대안으로 $\chi^2/df(Q\text{-value})$ 를 사용하며, 3.0이하면 수용할만한 수준이며, 2.0이면 매우 적합함을 나타낸다[62-64]. 확인적요인분석 과정에서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를 이용하여 적합도를 저해하는 2개 항목(자아존중감 1, 삶의 만족도 5)은 제거되었다. 이후 수정된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chi^2=318.110$, $df=116$, $p=.000$, $\chi^2/df=2.742$, $RMR=.033$, $GFI=.942$, $AGFI=.923$, $NFI=.941$, $CFI=.962$, $RMSEA=.054$, $TLI=.955$ 로 매우 적합한 수준을 보였다. 3개 요인의 적재치는 모두 0.6이상으로 나타났고, C.R 값은 모두 2.58 이상으로 나타나 0.01의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념신뢰도(CR)와 분산추출지수(AVE)는 모두 기준치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념에 대한 신뢰도와 기준타당성 및 내용타당성은 확보되었다.

표 4. 확인적요인분석결과

factor variable	S. loadings	S.E.	C.R.	CR ¹⁾	AVE ²⁾	
문화 예술 관람	C1	.735	-	-3)	.924	.636
	C2	.777	.057	18.651		
	C3	.809	.063	19.440		
	C4	.759	.050	18.210		
	C5	.744	.071	17.820		
	C6	.752	.061	18.021		
	C8	.626	.064	14.905		
자아 존중감	S2	.667	-	-	.865	.518
	S4	.667	.071	14.463		
	S5	.733	.072	15.689		
	S6	.787	.074	16.624		
	S9	.753	.073	16.043		
삶의 만족도	L1	.761	-	-	.859	.604
	L2	.787	.052	19.273		
	L3	.824	.055	20.209		
	L4	.757	.055	18.472		

$\chi^2=318.110$, $df=116$, $p=.000$, $\chi^2/df=2.742$, $RMR=.033$, $GFI=.942$, $AGFI=.923$, $NFI=.941$, $CFI=.962$, $RMSEA=.054$, $TLI=.955$

- 1) 구성개념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
- 2) 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 3) 분석 시 1로 고정된 값
- 4) ***p<.001

2.3 개념들 간의 상관관계분석 및 판별타당성

개념들 간의 방향성과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 변량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평균분산추출지수와 상관계수의 제곱을 비교하여 판별타당성의 확보여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개념들 간의 방향성과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살펴본 결과는 하삼각행렬에 제시하였다. 문화예술관람은 자아존중감과 0.298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삶의 만족도와는 0.315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간에는 0.679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판별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좀 더 엄격한 검증기준인 상관계수의 제곱과 평균분산추출지수를 비교 하는 방법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65]. 분산추출지수 값 중 문화예술관람의 값이 0.636으로 가장 높고, 상관계수 제곱 값 중 가장 높은 값이 0.461 이므로 판별타당성은 확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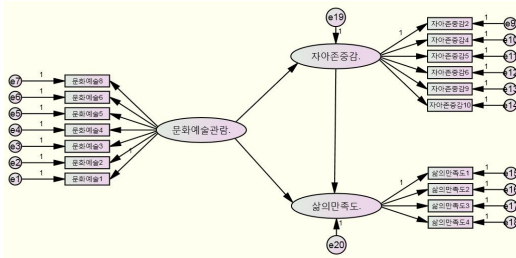
표 5. 구성개념들 간의 상관계수 및 판별타당성 검증

	문화예술관람	자아존중감	삶의만족도
문화예술관람	.636	.088	.099
자아 존중감	.298**	.518	.461
삶의 만족도	.315**	.679**	.604

- 1) 하삼각행렬: r
- 2) 상삼각행렬: r²
- 3) 대각선행렬: AVE
- 4) **p<.01

3. 가설검정

본 연구는 개념들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설계된 연구모형을 검증하고자 구조방정식분석을 통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chi^2=318.110$, $df=116$, $p= .000$, $\chi^2/df=2.742$, $RMR=.033$, $GFI=.942$, $AGFI=.923$, $NFI=.941$, $CFI=.962$, $RMSEA=.054$, $TLI=.955$ 전반적으로 개념들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설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형의 적합도: $\chi^2=318.110$, $df=116$, $p= .000$, $\chi^2/df=2.742$, $RMR=.033$, $GFI=.942$, $AGFI=.923$, $NFI=.941$, $CFI=.962$, $RMSEA=.054$, $TLI=.955$

그림 2. 연구모형 분석결과

가설 1, 문화예술관람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화예술관람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가설 2 문화예술관람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화예술관람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설 2는 채택되었다. 가설 3,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

의 수준이 높아지면,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표 6. 연구모형의 검정결과

가설	경로	β	t값 (C.R.)	검정 결과
H1	문화예술관람 → 자아존중감	.324	6.746***	채택
H2	문화예술관람 → 삶의만족도	.104	13.331***	채택
H3	자아존중감 → 삶의만족도	.755	2.867**	채택

$\chi^2=318.110$, $df=116$, $p= .000$, $\chi^2/df=2.742$, $RMR=.033$, $GFI=.942$, $AGFI=.923$, $NFI=.941$, $CFI=.962$, $RMSEA=.054$, $TLI=.955$

가설, 4, 문화예술관람은 자아존중감의 매개를 통해 삶의 만족도에 간접적으로도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화예술관람을 많이 하면,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직접적인 개념들 간의 관계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설 4는 채택되었다.

표 7. 문화예술관람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

가설	경로	β	p	검정 결과
H4	문화예술관람 → 삶의만족도	.245	.003**	채택

$\chi^2=318.110$, $df=116$, $p= .000$, $\chi^2/df=2.742$, $RMR=.033$, $GFI=.942$, $AGFI=.923$, $NFI=.941$, $CFI=.962$, $RMSEA=.054$, $TLI=.955$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문화예술관람이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론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예술 관람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관람 활동을 통하여 긍정적 경험을 하게 되고, 성취감 및 긍정적 감정을 가지게 되며,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은 배출되어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31]와 문화예술 활동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선행연구[32][33][42]의 결과를 지지한다. 대부분의 선

행연구에서는 관람보다는 ‘집단음악치료’, ‘무용치료’ 등과 같은 활동적 문화예술활동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관람만으로도 자아존중감이 향상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한가지의 문화예술활동이 아닌 여러 가지 문화예술활동들이 전반적으로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정부의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데 국민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문화예술관람 분야의 지원과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반영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문화예술관람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가문화 활동이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 선행연구[2][5], 공연관람 등의 여가활동이 많을수록 중, 고령자의 삶의 질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유대우(2014)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5]. 삶의 만족은 단순히 생존이나 생명 연장의 관점보다는 개개인이 직접 느끼는 주관적, 개인적 삶에 대한 관점에서 나타날 수 있고, 이는 성별, 연령, 결혼과 직업, 종교 등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 수많은 변수들에 의해 삶의 만족은 형성되는데, 그 중 문화예술활동이 분명 유의미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문화예술활동이 노인, 청소년, 장애인, 주부 등 다양한 특성의 사람들의 삶의 질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5][32][33][42][52].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2016)에서 제시했던 ‘2016 국민여가활동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이 여가활동으로 문화예술관람 및 체험활동을 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7]. 특히, 문화예술체험의 비중은 여가활동 항목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즉 국민들은 문화예술 체험 등의 여가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문화예술관람 활동의 비중은 체험에 비해 다소 높은 비중을 보였다. 따라서 문화예술관람도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문화예술 관람을 조금 더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일상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공원, 도서관, 관공서 등에서 더욱 많은 공연을 정책적으로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서

비스기업들은 다양한 메세나 활동 등으로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예술관람의 장을 만들어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기업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는 효과도 얻기를 기대한다.

셋째,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높아지면,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간에 긍정적 관계가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들[42][52][53]의 결과를 지지한다. 긍정적 자아를 가진 사람은 부정적 자아를 가진 사람보다 매사에 자신감이 높고, 에너지는 늘 발전적 방향으로 향하고 있으며, 추진력이 높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형성되거나, 개인이 속한 환경, 가치관, 개인적 성격에 의해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 사람들마다 다른 형태, 다른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자아존중감이 향상되면, 삶의 만족도가 향상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아존중감의 형성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요인들은 시간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같은 환경의 같은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연구했다고 해도 지역별, 환경별, 연구시점별로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 즉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시간에 의해 변화하는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간의 영향관계를 연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자아존중감 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원인변수들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하여 국민을 위한 복지 정책 및 도시환경 조성부분에 적용한다면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매우 개선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문화예술관람을 많이 하면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각 개념들 간의 직접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문화예술이 삶의 만족도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예술활동이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32][33][42]와 문화예술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5][32][33][42][52],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42][52][53]들을 지지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문화예술관람이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자아존중감의 매개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킨다는 것을 밝혔다. 문화예술체험은 문화예술관람에 비해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정도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2016)에서 제시하는 국민여가생활에서는 국민들의 여가생활에서 문화예술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7], 8가지 관람 항목 중에서도 영화관람의 비중은 높지만, 전시회 관람, 박물관 관람, 음악연주회, 전통예술공연, 연극공연, 무용공연, 연예공연 등의 비중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예술이 아직까지도 많은 국민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독특한 경험이라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문화예술관람 활동이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를 고려해볼 때 문화예술관련 프로그램들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시행 방법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예술활동에서 문화예술 체험의 비중을 높이는 것도 매우 의미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먼저 접근성이 높고 진입장벽이 낮은 문화예술 관람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국민들에게 문화예술이 익숙해지는 시점에 문화예술 체험의 비중을 높여가는 것도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본 연구는 문화예술 관람활동과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노력하였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하여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지역적 한계가 있다. 서울, 대구, 부산의 3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더 넓은 지역을 고려하여 확률적 표본추출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 설계를 진행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문화예술활동의 중요성은 다르게 인식될 것인데, 연구가 진행된 시점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종단적 연구 설계를 고려하기를 제안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활동에서 문화예술관람의 측면만을 고려하였

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2016)가 제시한 2016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 문화예술 관람활동이 체험활동보다 현저히 많았고, 체험활동의 비중이 너무 낮았기 때문이다 [7].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관람활동과 체험활동을 함께 고려하는 연구를 진행한다면 더욱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1] 황향희, 정현국, 강중학, “중국 여가 동향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2권, 제1호, pp.319-330, 2013.
- [2] 서해정, 직장인의 문화예술 여가활동 참가가 여가만족과 직무만족 및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기업지원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3] 김승현, 여가활동 참여 대학생들의 여가정체성 및 여가만족과 생활만족의 관계용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4] 김창연, 문화가 있는 날의 문화예술 관람동기가 여가만족 및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5] 유대우, 중고령자의 여가문화 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6] 이민영, 문화예술 활동이 중년 여성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성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7] 문화체육관광부, 2016 국민여가활동조사, 2016.
- [8] 김윤정,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9] N. McCarty, “The Appointments Dilemma,”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48, No.3, pp.413-428, 2004.
- [10] 김소정,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만족도가 내면화 문제행동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건국대학교

-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11] 장보민, *문학 중심의 융합 문화예술교육 효과: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12] 오은경, *원예치료가 주간보호센터에서 뇌졸중 후 편마비 및 퇴행성관절염 어르신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농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13] 임정순, “여가활동프로그램이 농촌여성노인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농촌간호학회지, 제2권, 제2호, pp.120-126, 2007.
- [14] 정용, “음악을 활용한 집단회상프로그램이 입원노인의 대인관계, 자아존중감, 우울에 미치는 효과,” 임상간호연구, 제15권, 제3호, pp.75-84, 2009.
- [15] 안영희, “음악·동작치료 프로그램이 만성질환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과학회지, 제28권, pp.69-81, 2012.
- [16] H. Read, *Erziehung durch Kunst*, Droemer : Munchen, 1968.
- [17] J. Dewey, *Art as experience*, 이제언 역, *경험으로서의 예술* 서울 : 책 세상, 2003.
- [18] 박은영, *한국의 미술교육 정책 분석 연구*,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19] 박은희, *한국 성인들의 예술문화소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20] 박미현, *중년여성의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 여가만족 및 생활만족의 관계*,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21] 이제연, *중년여성의 한국무용 공연 참여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22] 방현미,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사례연구*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23] 양보람,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계발활동 무용수업 참여정도가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24] 이인숙, *음악치료 프로그램 적용이 학습부진아의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평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25] 최현묵, *문화예술교육이 문화복지로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26] 하미경, 윤동열, “문화예술학습활동이 삶의 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 및 개방성의 조절효과,” 인적자원관리연구, 제20권, 제5호, pp.157-177, 2013.
- [27] 송병식, *문화적 여가활동 참여유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 강남지역 노인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28] 조복희, 정옥분, 유가효, *인간발달*, 서울 : 교문사, 1998.
- [29] M. Rosenberg,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Princeton, 1965.
- [30] S. Coopersmith,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H. Freeman, 1965.
- [31] 최병철, *음악치료학*, 서울:학지사, 2006.
- [32] 최소림, *노래를 중심으로 한 집단음악치료 활동이 장애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불안감소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33] 지명원, 조태영, “청소년의 여가활동이 여가만족, 자아존중감,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제36권, 제6호, pp.145-165, 2012.
- [34] 김혜수,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적응 매개효과, 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35] 김현중, *예술인파견지원 사업 참여예술인의 직무만족감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 [36] 박혜미, *직장인의 평생교육 참여 동기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37] 권한경, *중년여성이 인지하고 있는 삶의 질이 자*

-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38] 원경혜, 은퇴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변인 분석 : 주관적 건강인식의 매개효과와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 [39] 최태을, 도시지역 베이비붐세대의 노후준비 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건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40] 이설립, 노인의 자아존중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41] 김양순,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42] 김영길, “노인의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동서간호학연구지, 제14권, 제1호, pp.44-55, 2008.
- [43] 하유진, 자아 존중감 및 내의 통제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20, 30대 성인 남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44] 양명순, 자아해석 양식과 우울 및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의 안정성의 매개 효과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45] 정봉현,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46] 이주영,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 [47] 조수정,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사회성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48] 박윤진,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만족도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48] 박지연, 자아 존중감이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50] R. J. Havighurst, *Personality and patterns of aging*, The Gerontologist, 1968.
- [51] M. J. Sigy, “The quality-of-life (QOL) research movement: Past, present, and future,”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76, No.3, pp.343-466, 2006.
- [52] 위세아, 노숙인의 문화여가활동이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사회통합감의 매개효과-,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53] 정명숙, 강석임, “시설거주 정신장애인의 삶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24권, pp.81-108, 2010.
- [54] 조성자, 노년기의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55] 최은화, 대학생의 자기불일치와 삶의 만족도와 의 관계에서 마음챙김의 조절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56] 강윤아, 부모 및 자녀 삶의 만족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인과관계 분석: 잠재성장모형, 잠재계층 분석, 잠재전이분석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 [57] 김응경, 기혼여성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구 천안과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백석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58] 전병제, 자아존중감: 측정검사, 연세논총, 1974.
- [59] 윤석주, 전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부모양육태도의 조절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60] B. C. Diner, P. J. Holcomb, and R. A. Dykman, *P300 in major depressive disorder*, *Psychiatry Research*, 1985.
- [61] 이원남, 발달장애 성인자녀 부모의 돌봄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사회적 지지, 가족탄력성,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 [62] 김계수, *Amos 16.0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출판사, 2008.

[63] 김대엽, *Amos A to Z: 논문작성절차에 따른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과주시: 학현사, 2008.

[64] 이학식, 임지훈,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AMOS 7.0*, 과주시: 법문사, 2008.

[65] C. Fornell and D. F. Larcker,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18, No.1, pp.39-50, 1981.

저 자 소 개

김 준(June kim)

정회원



- 2001년 2월 : 단국대학교 연극영화과(학사)
- 2016년 8월 : 단국대학교 공연예술학과(석사)
- 2018년 8월 : 단국대학교 문화예술학과(박사수료)

▪ 2017년 9월 ~ 현재 : 호산대학교 뮤지컬과 조교수
<관심분야> : 연극 문화예술콘텐츠 연구치료

최 배 석(Bae-Suk Choi)

정회원



- 1984년 2월 : 단국 대학교경제학과(학사)
- 1994년 2월 : 뉴욕시립대학교 TV/ Radio 학과(석사)
- 2012년 8월 :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박사)

▪ 1998년 3월 ~ 2004년 2월 : 단국대학교 연극영화과 조교수
▪ 2012년 3월 ~ 현재 :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문화예술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영화 문화예술콘텐츠 소통심리학